

의령군 새 해 7대역점시책 추진



김채용군수가 의회에서 2008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의령군은 내년도 군정 방향을 '희망과 생기와 사랑, 푸름과 결실과 손님, 그리고 행복이 가득찬 의령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아래 7대 역점시책을 마련, 추진한다.

김채용 군수는 지난 5일 열린 군 의회 2008년도 시정연설에 이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하기위한 7대 역점시책을 확정했다며 이를 활발히 추

진하는데 군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가 밝힌 7대 역점시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새로운 산업입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찾아서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참 복지 실현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청정웰빙 의령 보전 ▲친환경 고품질 으뜸브랜드 농업 육성 ▲전통과 역사 향기담은 문화관광

김채용 군수, 2008 시정연설서 군정방향 밝혀 지역경제 회복·고품질 농업육성등에 집중

기반구축 ▲신뢰와 감동의 군민중심 자치행정 실천 등이다.

김 군수는 이 같은 군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한 2,327억원으로 편성해 이중 11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회복지분야와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7대 역점시책은 첫째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희망 가득 찬 의령을 만들기 위해 군 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재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을 벌인다.

둘째 신 산업입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으로 생기 가득 찬 의령을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의령사랑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의령사랑상품권 판매 확대,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통안전 기초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찾아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참 복지실천으로 사랑가득 찬

의령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 여성단체 활성화 및 취미교실확대,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 건전 청소년 육성,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펼친다.

넷째 맑은 물 푸른 숲 청정 웰빙 의령보전사업으로 푸름이 가득 찬 의령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벌인다.

다섯째 친환경 고품질 으뜸브랜드 농업육성으로 결실 가득찬 의령을 위해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반확대, 농업인 자금 융자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토요애 브랜드 육성 사업,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양성, 의령 칠한우 브랜드 공동 마케팅,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 의령민속 소싸움대회 개최사업을 벌인다.

여섯째 전통과 역사 향기를 담은 문화관광 기반구축으로 손님이 가득 찬 의령을 만든다는 목표로 래 제3회 의병제전 행사, 문화예술활동 육성 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호미산성 발굴조사, 미타산성 복원정비, 충의사 유물전시관 건

립, 벽계관광지 확대 조성사업 등을 벌인다.

일곱째 신뢰와 감동의 군민중심 자치행정으로 행복가득 찬 의령을 만들기 위해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행정, 현장 행정강화, 신비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 정주인구 확보 노력 강화, 공공시설이용감면, 영농자재지원 우리고장 명문학교 육성 등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무자년 새해맞이 자갈산서

무자년 새해 해맞이 군민안녕 기원제 및 자갈산 정상 표지석 제막식이 오는 1월1일 오전 7시15분을 전후해 자갈산 정상에서 열린다.

자갈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이창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군민들의 화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자갈산 정상 표지석 제막식이 같이 열려 자갈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년사

희망 가득한 의령을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물고 무자년의 새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은 2007년 한 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복지 의령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 민선4기 군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과 향우 여러분들이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08년 군정 방향을 '희망과 생기와 사랑, 푸름과 결실과 손님, 그리고 행복이 가득찬 의령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아래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하기위해 7

대 역점시책을 마련했습니다.

7대 시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새로운 산업입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찾아서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참 복지 실천,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청정 웰빙 의령 보전, 친환경 고품질 으뜸브랜드 농업 육성, 전통과 역사의 향기 담은 문화관광 기반구축, 신뢰와 감동의 군민중심 자치행정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 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활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경제가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도 더욱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군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의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류의령을 만들고 일류군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저력이면 희망이 가득한 의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밝고 활기찬 고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1월1일 의령군수 김 채 용

“군민 관심과 참여 있어야 감사 더 잘할수 있어”

인터뷰

강성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해온 위원장으로서 감사 총평을 해주십시오.

△이번 감사는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들이 의령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기회였습니다.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점검하였으나 커다란 대과없이 대체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적인 사고와 자세로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대비한 의원들의 열성과 준비 자세는 어떠했다고 보는지요

△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

집행부는 취약분야에 행정력 집중해야 체육센터 부실지적·대안제시등에 높은 점수

의령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 기간중 을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여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등 집중적인 활동을 벌였다. 강성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만나 감사총평과 함께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새해 포부를 들어보았다.

의 자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실하고 의욕이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통하여 평소 군정 수행함에 있어 자칫 안일한 판단으로 군민과는 거리가 먼 시책들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또한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는지를 찾아내고자 군민과의 잦은 만남을 통하여 여론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각종 언론보도자료나 회의록 등을 꼼꼼히 챙기면서 의문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대한 사전 조사와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무감사에 임하여 온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감사 최우수 의원을 꼽는다면, 그 이유는.

△모든 동료의원들이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사무감사에 임하였으므로 누가 더 우수하였는지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야 한다면 최고 연장자인 이창섭 의원의 활동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여론의 맥을 잘 읽고 집행부 시책의 방향이 군민의 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대하여 논리 정연한 질문으로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간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든다면

△지적사태가 여러 가지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국민체육센터 준공 이후 수영장 구조물의 부식현상 등 부실공사부분에 대한 대책, 의령읍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여기 저기 조금씩 추진하는 것 보다 우선순위에 의거 한곳이라도 조기 완공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청정의령의 이미지를 위하여 최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일제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을 촉구한 점 등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수감자세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은.

△금년 사무감사시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사전준비를 위한 추가자료 요구시 신속히 제출하고 보충 설명을 해주었으며 서류감사와 추궁성 질의에 대해서도 면피성 답변보다는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으로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평소 공직자들께서 우리 의원들과 상급자에 대하여 자세를 군민에게도 똑같이 대하면서 군인이 제일 큰 어른신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

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의 감사에서 질문과 답변등 감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위원장님의 복안은.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비롯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은 군민들의 협조없이 원만히 해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에 군민께서 혹 사나 불편을 여기시는 것이 없나하고 좀더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보를 기다리며 홍보하였으나 참여해 주신 분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군민께서 만족하고 계시는 모양이라고 위안을 삼으면서도 여론수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반성하여 봅니다. 다음부터는 군민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의 기슭에 외닿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군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의령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집행부도 우리 의원도 아닌 모든 군민입니다. 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여망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각오를 다졌지만 되돌아보면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군민의 희망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새해 예산안 처리·행정사무감사도 벌여



의령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를 구성하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의령군의회(의장 제훈)는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0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집행과정에서 잘못

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6건 등을 상정·심의했다.



새로 의령군의회에 입성한 김상규 의원(44 의령읍·용덕면)은 먼저 군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희망찬 의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의원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노인의 복지 향상,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의령 만들 터”

12.19 재보궐선거 당선 김상규 의원

고향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며 실천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의령을 만드는 데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며 젊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소외계층 및 노인복지 향상과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며, 무엇이 고향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하며 실천하는 군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의령고등학교를 졸업, 청년회의소 회장을 두 번 지냈고 의령군체육회 이사, 의령군투우협회장 등을 지내면서 폐기와 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의령군 올해 상복 터졌다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등 24개부문 수상



지난달 28일 서울힐튼호텔서 열린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

의령군이 올해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표창 등 모두 24개 부문에서 골고루 상을 받아 중앙부처로부터 종합행정능력의 우수성과 구성원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중에서도 농정과 복지분야는 전국최고 수준의 행정력을 갖춘 것으로 자타가 동인하는 분야가 됐다.

군은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균형발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상을 받는데 이어 이날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1월중에 상을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부문 준우수상과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농림부로부터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자와 FTA 기금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의령군은 이밖에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임도사업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돼 전국 기관단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산림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남도로부터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평가부문 최우수상을 받는등 11차례 표창을 받았다.

2007년 의령군의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행정자치부)
- 균형발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자치부)
- 2007년 전국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준우수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자치경영대전 경영혁신 역량 우수기관 (문화관광부)
- 살기좋은 행복도시 선정 (한국 해럴드경제신문)
- 2007년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선정 (농림부)
- 2008년도 FTA 기금사업 대상 군 선정 (농림부)
- 2007년 제9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우수상 (산업자원부)
- 토요일에 2007년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산업자원부)
- 2007년 농업경영전설명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 지정 (산림청)
- 2007년 임도사업 평가 우수 (산림청)
- 2007년 임도사업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 2007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 2007 건축행정내실화 사업 우수기관 (경상남도)
- 의병제전 경상남도 우수 문화예술 축제 선정 (경상남도)
- 2007 농정업무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 2007 경남 우수브랜드 쌀 장려 (경상남도)
-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 최우수 (경상남도)
- 2007년 하천제방정비 평가 우수 (경상남도)
- 2007년 지방도로 유지관리평가 장려 (경상남도)
- 2007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실태평가 장려 (경상남도)
- 2007년 농촌지도사업 평가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 건축민원 포털사이트 운영

www.eais.go.kr이용 처리기간 대폭 단축

의령군은 최근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와 신고 등 건축 관련 모든 인·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 처리 한다.

민원인은 건축민원 포털사이트 (www.eais.go.kr)를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건축 관련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도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민원내용 및 설계도서를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문서에 의존한 내·외부 협의를 함으로써 서류 발송과 취합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첨부도서의 복사 등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부서 협의 및 공문 발송을 전자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를 집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로의 적시성과 활용성이 부족했으나, 이 시스템의 사용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물량의 집계시간이 단축된다. 이에따라 신속한 건설경기 예측으로 철근, 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수급계획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통계를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름유출 응급복구 방제장비 전달

의령군은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방제장비 5백만원어치와 폐현수막을 긴급 지원했다.

군은 지난 14일 오전 박근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현지에 보내 방제물품을 전달하고 태안군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지원물품은 방제복과 마스크, 장화, 장갑 등 5백만원어치로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또 기름흡착포가 동이 남에따라 흡착포를 대체할 폐현수막 5백매를 수거해 이날 함께 전달했다.

다음 사업은 2008년에도 계속됩니다	
사 업 명	위 치
의병유물전시관 건립	의령읍 중동리
호국참전기념비 건립공사	의령읍 백야 오거리
명주~만천간(군도 22호)	의령읍 하리
군도22호(성남)정비	의령읍 하리
동동도시계획도로개설	의령읍 동동
의령서동도시계획도로개설 (터미널~삼영파크)	의령읍 서동
남산동도시계획도로개설 (지호카~최외조택)	의령읍 동동
중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령농협~미림목욕탕)	의령읍 중동
대도정비~서동국도간도로확장공사 (보건소~미곡처리장)	의령읍 서동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	의령읍 의령시장내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시설 복구사업	가례면 양성리 외 7개소
가례천(수성지구) 수해복구공사	가례면 수성리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조성사업	가례면 개승리
중촌지구생활용수 개발사업	칠곡면 중촌리
십지마을진입로확포장	대의면 십지리
유수~기수간 확포장	화정면 기수리
세간농로교 수해복구	화정면 상정리
성비농기계보관창고설치	용덕면 신촌리
운곡농기계보관창고설치	용덕면 운곡리
가미 (터부이골)농로확포장공사	용덕면 가미리
가락용수로정비공사	용덕면 가락리
이목농로개설공사	용거면 이목리
정동농어촌도로개설공사	용덕면 정동리
신소농업용수개발	용덕면 소상리
정동구거정비공사	용덕면 정동리
와요농로확포장공사	용덕면 와요리
나림지구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정면 봉곡리
전화~이근간확포장	낙서면 이근리
낙서공설운동장조성사업	낙서면 전화리
월전도로확포장공사	부림면 감암리
구산지구생활용수개발사업	부림면 손오리
부림자전거도로포장공사(2차)	부림면 신반리
부림도시계획도로개설 (동동~대문동)	부림면 신반리
봉황대 화장실 설치공사	궁류면 평촌리
토곡 · 당동지구생활용수개발사업	궁류면 토곡리
구송산마을하수관로 설치사업	궁류면 다현리
	유곡면 송산리

지방세 카드로 납부하세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의령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18일 현대카드사와 지방세 납부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신용카드 납부제의 도입으로 고객채납 및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감소시키고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대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결제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액은 없으나 할부 이용시 할부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군은 지금까지 군민의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시간 납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시행해왔는데 현대카드사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타 카드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에게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8년 7대 역점시책으로

의령군은 2008년 새해 군정 방향을 ‘희망과 생기와 사랑, 푸름과 결실과 손님, 그리고 행복이 가득찬 의령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장기적인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7대 역점시책을 마련했다.

7대 역점시책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새로운 산업입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찾아서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참 복지 실천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청정웰빙 의령 보전 ▲친환경 고품질 으뜸브랜드 농업 육성 ▲전통과 역사의 향기를 담은 문화관광 기반구축 ▲신뢰와 감동의 군민중심 자치행정 실천 등이다.

의령군은 이같은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해 예산을 2007년보다 12.8% 증액된 2,327억원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분야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에 보다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1. 희망가득 찬 의령

균형과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 군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 : 1,764백만원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 9개노선 60km 7,179백만원
- 전일마을 조성사업 : 4,600백만원
 - 화정면 자곡지구 : 23,756㎡
 - 장곡면 백곡지구 : 29,524㎡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6,475백만원
 - 위치 : 칠곡면 (배조리, 외조리, 신평리)
 - 내용 : 마을경관개선, 주민소득기반확충, 생활환경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 정주권 개발사업 : 1,594백만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 11,500백만원
 - 의령도시계획도로 : 4개노선, 930m
 - 부림도시계획도로 : 2개노선, 710m
- 오지개발사업 : 평곡·대의면, 2,786백만원
- 정암지구 재해위험지구 보강공사
- 소화천 정비사업 : 5개소 4,000m 1,533백만원
- 소화천 수해복구사업 : 소화천, 지방2급하천(31건), 2,205백만원
- 하도 준설사업 : 3개지구 2,100m 1,831백만원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210동 2,000백만원
-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 : 132,000㎡, 10,400백만원

신 산업입지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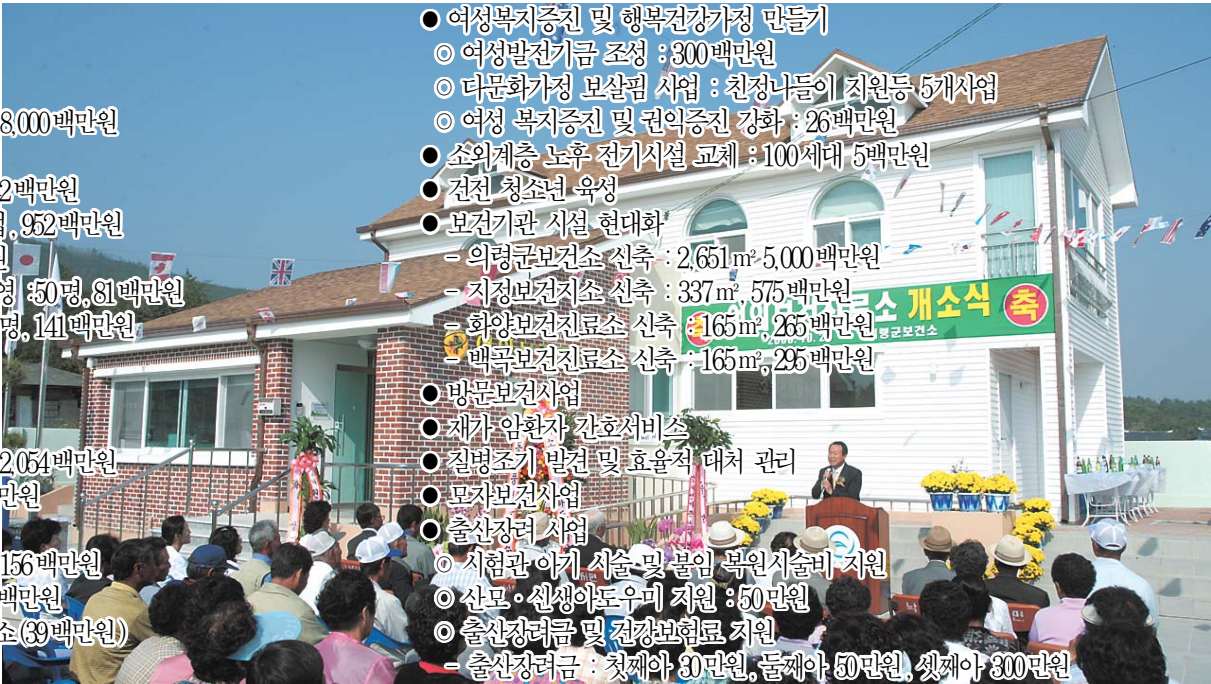
- 지역경제 살리기 『의령사랑운동』 전개
-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연600명 421백만원
 - 고용촉진훈련 : 10백만원
 - 노인일자리 창출
 - 취업 알선창구 운영 : 고용정보망, 홈페이지 활용
- 중소기업육성 지원
 -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 : 3개업체 10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이차보전 2.5%(40억용자)
 - 지역기업 생산물 구매 홍보 : 홈페이지 홍보란 신설
 - 관용물품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 시장 아케이드 설치 : 2개소 (1,000백만원)
 - 의령시장 화장실 설치 : 214백만원
- 시장 상인 선바람 축제
- 지방산업단지 조성
 - 조성규모 : 30만㎡정도, 300억원
- IP가스시설 개선
 - 기초수급자 IP가스 배관교체 및 완성검사 : 270개소 45백만원
- 교통안전 기초시설 확충

3. 사랑가득 찬 의령

찾아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참 복지실천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
 - 기초생활 보장 : 1,220가구 5,071백만원
 - 자활사업 및 자립금 지원 : 110명 737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1,430가구 2,397명 8,000백만원
-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2,378명 1,642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보호 : 6개사업, 952백만원
 -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추진 : 80건, 122백만원
 - 장애인 돌봄미 바우처사업 및 도우미뱅크운영 : 50명, 81백만원
 - 재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및 재활교육 : 50명, 141백만원
 - 장애인 재활교육사업 : 105명 15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 고령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장수수당 및 노인건강진료비 지급 : 6,000명 2,054백만원
 - 노인교통수당 (65세이상) : 9,000명/1,030백만원
 - 마을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 매년 26개소 156백만원
 - 노인건강체육대회, 실버체육활동 : 11회, 70백만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내 1개소 (39백만원)
 - 노인대학 운영지원 : 6개소 15백만원
 - 노인 전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 3개소 1,750백만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신축 : 2개소 460백만원
- 여성복지증진 및 행복건강가정 만들기
 - 여성발전기금 조성 : 300백만원
 - 타문화가정 보살핌 사업 : 천정나들이 지원등 5개사업
 - 여성 복지증진 및 권익증진 강화 : 26백만원
 -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 : 100세대 5백만원
- 전진 청초년 육성
-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 의령군보건소 신축 : 2,651㎡ 5,000백만원
 - 지평보건지소 신축 : 337㎡ 575백만원
 - 화양보건지소 신축 : 165㎡ 265백만원
 - 백곡보건지소 신축 : 165㎡ 265백만원
- 방문보건사업
- 재가 임환자 간호서비스
- 질병조기 발견 및 효율적 대처 관리
- 모자보건사업
- 출산장려 사업
 - 시험관 아기 시술 및 불임 복원기술비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50만원
 -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0만원
 - 건강보험료 : 1인 월평균 2만5천원, 5년지원, 10년보장



희망 의령을 만들겠습니다

4. 푸름가득 찬 의령

맑은 물 푸른 숲 청정 · 웰빙 의령보전

- 
-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쓰레기 종량제 정착
 - 소각시설 운영관리
 -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름조성
 -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우곡상수원 확충 공사 : 51,500백만원
 -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
 - 노후관 교체사업 : 3.0Km300백만원
 - 노후 계량기교체 : 850건 50백만원
 - 누수방지급수전보수 : 50개소 50백만원
 - 우곡정수장 차이염소잔 나트륨 발생기 설치 : 110백만원
 - 수교구 수도시설 관리 : 274개소
 - 하정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 7,048백만원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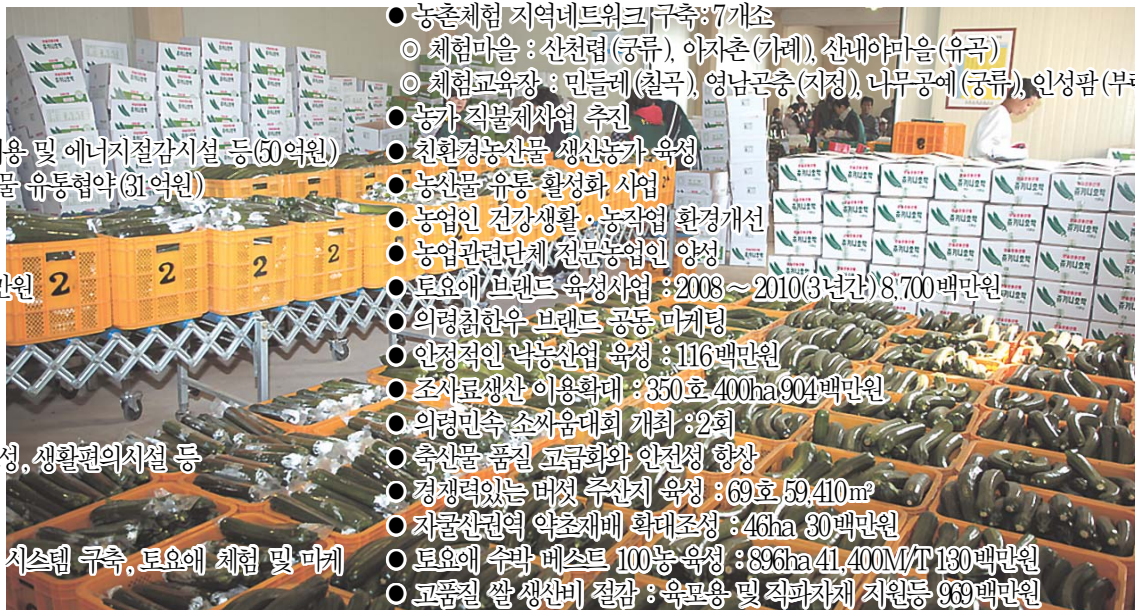


- 하수관거정비 사업 : 7,400백만원
- 푸른의령 가꾸기
 - 생활주변나무심기 : 5개소, 20,000주
 - 지역명소 가꾸기 사업 : 자굴산관광승화도로변, 300백만원
 - 카로수 식재 : 4개소(5km), 300백만원
 - 도로변 소공원 사업 : 4개소 280백만원
- 산물방치
- 산림병해충 방제

5. 결실가득 찬 의령

친환경 고품질 으뜸브랜드 농업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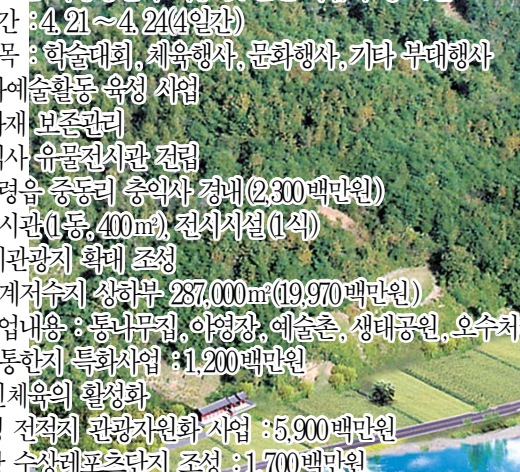
-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 복합유통센터 (APC) 설치 : 10,000㎡, 60억원
 - 토요에 마케팅 대학 강좌 : 200명
 - 팔릴 수 있는 고품질 상품 생산 : 시설현대화, 비용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50억원)
 -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 수박, 양상추 등 원예작물 유통협약 (31억원)
 -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반확대**
 - 수출농가 추가확보 : 30농가 90ha
 - 수출농단(농가) 시설보완사업 : 30농가/900백만원
 - 분기별 수출촉진자금 지원 : 200백만원
 - **농업인 자금 융자지원**
 -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
 - 위 치 : 의령읍 수암마을
 - 사업내용 : 농촌체험기반시설조성,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 **토요에 브랜드 육성 사업**
 - 사업비 : 8,700백만원 (2008년 ~ 2010)
 - 고품질 토요에 상품생산 연구개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토요에 체험 및 마케팅 사업



-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 7개소
- 체험마을: 산천령(궁류), 이차촌(가례), 산내야마을(유곡)
- 체험교육장: 민들레(철곡), 영남곤충(지정), 나무공예(궁류), 인성팜(부림)
- 농가 직불제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육성
-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 농업인 건강생활 · 농작업 환경개선
- 농업관련단체(전문농업인) 양성
- 토요일 브랜드 육성사업 : 2008 ~ 2010(3년간) 8,700백만원
- 의령칠한우 브랜드 공동 마케팅
-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 : 116백만원
- 조사료생산 이용확대 : 350호 400ha 904백만원
- 의령민속 소자육대회 개최 : 2회
-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 경쟁력있는 버섯 생산지 육성 : 69호 59,410㎡
- 지물산권역 야초재배 확대조성 : 46ha 30백만원
- 토요일 수확 테스트 10농 육성 : 896ha 41,400M/T 130백만원
-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 육포용 및 직파차재 지원등 939백만원

6. 손님가득 찬 의령


전통 · 역사 향기담은 문화관광 기반구축

- 
- 제36회 의병제전 행사
 - 숭고한 의병정신의 계승 및 군민 화합의 장 마련
 - 기간 : 4.21 ~ 4.24(4일간)
 - 중목 : 학술대회, 체육행사, 문화행사, 기타 부대행사
 - 문화예술활동 육성 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 충익사 유물전시관 건립
 - 의령읍 중동리 충익사 경내(2,300백만원)
 - 전시관(1동, 400㎡) 전시시설(1식)
 - 벽계관광지 확대 조성
 - 벽계저수지 상하부 237,000㎡(19,970백만원)
 - 사업내용 : 통나무길, 야영장, 예술촌, 생태공원, 오수처리장 등
 - 전통한지 특화사업 : 1,200백만원
 - 군민체육의 활성화
 - 의병 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5,900백만원
 - 남강 수상레포츠단지 조성 : 1,700백만원
 - 입산 문화·역사마을 건립 사업 : 2,634백만원
 - 역사이물 문화관광 상품개발 : 1,200백만원



7. 행복가득 찬 의령

신뢰와 감동의 군민중심 자치행정

- 
- 고객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
 - 현장 행정강화
 - 신바람나는 공직문화기 조성
 - 걸찬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
 - 정주인구 확보 노력 강화
 - 지방행정혁신 활성화
 - 군정 홍보기능 강화
 - 재정의 효율적 운용
 - 우리교장 명문학교 육성
 - 학생기숙사 건립 지원 : 의령여고, 신바람정보고
 - 교육경비 모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장학사업 지속추진
 - 방과후 학교진행 사업
 - 중증고교 심화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 원어민 영아캐프 운영 등

송이토마토 · 애호박, 의령군 새 소득원 각광

2.5kg 단위 소포장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서 높은 가격에 거래 애호박, 13농가 3.4ha 재배 ‘토요애 애호박’으로 공동출하 계획



송이토마토(위)와 애호박

송이토마토와 애호박이 의령군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령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험재배에 성공하면서 최근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송이토마토는 2.5kg 단위로 소포장해 서울 가락동 농협공판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하우스 축성재배 소득작물로 대체 재배되고 있는 송이토마

토는 네덜란드 품종인 알란카와, 일본의 피콜리노 품종으로서 송이가 아름답고 크기가 적당한데다 맛이 뛰어나며 먹기에도 좋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첫 수확한 송이토마토는 농업기술센터 새 기술 실증시험포에서 8월 상순에 파종, 한 달간의 육묘 후 9월 상순에 정식하여 활착 단계를 거치는 등 중자 파종 후 4개월여 시험 재배

한 것이다.

군은 현재까지의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화정면 김철호씨가 새기술 실증시험포장보다 2개월 늦게 정식하여 기술 전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술이 완전 정립되면 단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애호박은 유기니호박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령군은 그동안 군을 대표할만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애호박을 선정하고 지난 2005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새 기술 실증시험포와 몇몇 선도 농가를 주축으로 애호박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재배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3농가 3.4ha에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어 의령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의령은 시설호박 전국최대 생산지로 재배면적이 500여 농가에 170ha에 이르러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호박가격을 결정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애호박재배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재배용 인큐베이터 애호박 비닐용기 9만매를 제작하고 고품질 애호박생산을 위한 관비재배시설 2개소,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레이식 무인방제시설 2개소와 안전한 애호박재배를 위한 잔류농약검정시험을 지원해왔다.

군은 향후 애호박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하기로 하고 안전한 생산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을 투입해 의령군 공동브랜드 ‘토요애 애호박’으로 공동출하할 계획이다.



파프리카 일본에 첫수출

의령군 화정면의 화정수출농단(대표 오영세)에서 재배한 파프리카가 24일 일본으로 첫 수출됐다.

이번에 선적된 수출물량은 화정수출농단의 오영세, 이승만, 오도석, 오세, 윤종자씨 등 5농가가 1.5ha에 재배한 파프리카로 수출계약기간은 내년 7월말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150톤, 50만 달러어치가 수출된다.

파프리카는 지난 8월20일 중자파종을 한 뒤 4개월만인 이달 17일 첫 수확했다.

화정수출농단은 올해 초 도내 우수농단 견학과 자체 농가들의

의지로 수출농단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령군의 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물인 파프리카를 재배하게 되었다.

품목전환으로 인한 초기 어려움이 많았으나 컨설팅과 생산농가들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번에 처녀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97년에 조성된 화정수출농단은 2001년까지 유기니호박을 수출했고 2004년과 2005년 초까지는 가지를 수출해 농가소득을 올렸다.

공직의 창

나비효과.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 이론이다.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 무역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ODA)의 경우 ‘세계화’란 명분을 앞세워 농산물에서부터 교육 등 서비스 시장에 이르기 까지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요인은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체스프리’ 골드 키위는 주부들의 명품으로 인식 된지 오래고, 오렌지 하면 ‘썬키스트’를 연상하게 되며 ‘돌’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수입산 열대과일은 우리 식탁에서 친근하게 마주하게 되어 이전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어적 태세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마치 홍수환과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시합에서 ‘이겨라 홍수환’을 외치는 공허함 이라 할까?

그러면 한국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는 뭘까?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의령군은 농업 총생산액이 약 2천 3백억 원으로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산업구조상 농업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 유발효과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시책을 펼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령농산물 특성은 원예산업 중심의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개별분산 출하와 공영 도매시

장 중심의 확실성, 그리고 수박 등 대표 농산물은 관행적 포전거래로 이어져 생산 단계까지만 의령산이고 그 이후는 얼굴 없는 농산물로 유통되고 있다. 한마디로 진단이 불가능한 총체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거래는 마진을 목표로 품질이든, 가격이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구 50%가 집중한 수도권역 시장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은 의령산 농산물 경쟁력에 있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마케팅은 농가조직화, 재배관리 표준화, 수확 후 관리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산지시스템을 필수적인

‘토요애’ 나비효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시간과 예산, 인력이 충족되면 가능한 일들이지만 시장은 우리만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한 비전 제시를 위해 의령군은 지난 3월 17일 공동브랜드 ‘토요애’ 선포식을 가졌다. 대표 브랜드가 없는 내수시장에서 소비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심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토요애’ 브랜드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림부 지원 전국 2개소, 개소당 200억원 규모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

성지원 사업을 수주했으며 33억원 FTA 과수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마침내 지난달 28일 2007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에 빛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른다.

이제 ‘토요애’는 한국 농업의 발전과 FTA 대응책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져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농산물 마케팅은 현실을 반영하는 학문적인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시장 유동성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과제로 남는다.

내적으로는 ‘토요애’ 마케팅을 전담하는 브랜드 경영체인 ‘의령군 농협공동사업법인’의 조직정비와 경영지표 개발이 시급하고 팔릴 수 있는 상품 생산을 위해 재배관리 표준화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물량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완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토요애’ 브랜드 사업전담 기구가 절실하다.

브랜드 자산 가치는 그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과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 그리고 공직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다.

지구촌 한 구석 의령군에서 시작된 ‘토요애’ 날개 짓의 미세한 변화는 뉴질랜드 ‘체스프리’를 넘고 미국 ‘썬키스트’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로 성장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 선상에 바로 의령군이 서 있다.

김수진 (의령군 농정 과)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겨울나기

군, 차상위계층 위주 종합대책 마련

의령군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연탄을 같이주는 등 동절기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월동지원법위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을 배려한 정책으로 군은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연계사업과는 별도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연탄 같이주기와 배달 지원 사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생활지도사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1대1 연계, 기관단체 및 독지가를 통한 사랑의 연탄 배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또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존 640명 외에 독거노인 194가구에 온풍기와 온열기 등 난방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롭게 생활하는 독

거노인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적극 추진한다.

시범대상지역은 의령읍 만하정로당 10명, 용덕면 상용소 6명 등 2개소 16명이다. 군은 읍면별로 독거노인공동생활사업 특별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남표현 정곡면 협의회장등 54명 표창



의령새마을지도자 대회서 54명이 상을 받았다.

의령군은 24일 오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서은태새마을지회장과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및 유관기관장등 6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안홍달 기업성공학회 이사장의 '새 시대 새마을지도자의 자세'란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고 이어 올 새마을운동성과보고, 우수지도자 시상, 감사패 전달, 대회사, 축사, 성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남표현 정곡면 협의회장이 행사부장관상을 받는등 54명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남표현 정곡면 협의회장, 정순임 용덕면 부녀회장 △경상남도지사 표창 - 강병하 대의면 협의회장, 이정희 부림면 부녀회장, 조용호 지정면 문고 분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장 표창 : 이종남 가례면 문고 분회장 △경상남도새마을회장 표창 : 정현대 가례면 협의회장 △의령군수 표창 : 의령읍 왕한식의 25명 △의령경찰서장 표창 : 대의면 박경자의 5명 △군새마을지회장 표창 : 의령읍 황말남 외 12명

의령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사례발표·유공자 표창에 축하공연도



의령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자원봉사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의 결속과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는 2007 의령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14일 오후 김채용 군수와 기관단체장, 자원봉

으로 이어졌다. 전북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오정선 사무처장이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군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사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의령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축제는 자원봉사활동 동영상 및 사진소개, 사례발표와 특강,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했고 의령군 청소년자원봉사팀과 의령읍자원봉사팀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 김선옥씨(의령읍자원봉사회)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제정영씨(의령읍자원봉사회)등 6명이 군수표창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도지사표창 김선옥 허만득 최복남 조경래 장추단 부림면자원봉사협의회 ▲군수표창 제정영 박성원 김진숙 정미숙 정문식 최해순 이순자 ▲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이진아 김성임 천선자 이정두 이정순 신영순 의령우체국 우정봉사회 낙서면자원봉사협의회

지정면 박경술·가례면 구해자씨 집 의령군, 올해의 아름다운 주택 선정



박경술씨 집(위)과 구해자씨 집

의령군은 10일 '올해의 아름다운 주택'으로 지정면 유곡리 박경술씨 집과 가례면 양성리 구해자씨 집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2동의 주택은 경사지붕으로서 건물의 외부마감을 밝고 신뜻한 색상으로 하였고, 높이가 낮으면서 투시형으로 된 담장과 건물과 조화되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건물의 균형감

자가 293명, 여자가 2,076명으로 노인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이 이번 독거노인보호 특별대책수립을 앞두고 독거노인의 생활여건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양호 2,052명, 치매? 중풍38명, 기타질환 279명이었고 경제력은 기초생활 수급자 353명, 저소득320명, 일반1,68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에서 생활지도사를 파견해 중점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520명이다.

현재 군에서 생활지도사를 파견해 중점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520명이다.

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뛰어나다.

특히 건축면적이 79㎡ 및 98㎡로 크지 않고 아담하며, 자연친화적인 나무를 이용한 목구조로 건축비용이 ㎡당 79-8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건축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이들 우수주택의 건축주 및 설계자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포상 추천하여 도지사의 표창과 우수주택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 전시용 판넬을 제작하여 도내 다른 시·군의 우수주택과 함께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기여한 우수주택 2동을 '올해의 아름다운 주택'으로 해마다 선정, 발표하고 있다.

마산등 전국3곳에서 토요일에 브랜드 마케팅

의령군은 7일부터 31일까지 마산대우백화점을 비롯한 전국 3개 장소에서 토요일에 브랜드마케팅 행사를 갖고 공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올 상반기 수박을 이용한 토요일에 이벤트가 큰 성과를 거둬에 따라 이번에는 유명 방송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상남 삼성플라자, 고양 하나로클럽, 대우백화점에서 단감과 대봉을 이용한 하반기 홍보행사를

갖는다.

8일엔 대우백화점에 텔런트 이혜숙씨, 삼성플라자에 이희향씨, 하나로클럽에 황은정씨가 각각 매장에서 토요일에 홍보대사를 맡아 판촉활동을 벌인다.

또 15일엔 황은정 박미선씨, 22일엔 이혜숙 황은정씨, 29일엔 황은정 송은이씨가 분당과 일산의 매장에서 고객과 만나는 등 총9차례 토요일에 브랜드 홍보를 벌인다.

의령 3대명산에 정상 표지석

자굴산 한우산 미타산 ... 30만 군민정신 상징물로



의령군의 3대명산에 정상표지석이 설치되었다. 왼쪽부터 자굴산 한우산 미타산의 표지석.

의령군의 명산인 자굴산과 한우산 미타산에 정상석이 설치됐다. 자굴산에는 15년전 사람이 직접 운반해 설치한 정상석이 있었으나 규모가 작아 유래문이 없어 그동안 교체여론이 대두되었

고 한우산과 미타산은 정상석이 아예 없어 산악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설치 필요성이 형성되어 왔다.

군은 이에따라 지난달부터 협차게 발전하는 의령군의 기상과 30

만 군민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악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주요명산 3개소의 정상석을 제작해 산림청 대형헬기의 지원을 받아 설치작업을 마쳤

다.

자굴산에는 무게 2.6톤 높이 1.6m×넓이0.9m 규격의 정상석으로 교체했고 비슷한 크기의 유래석과 좌대석이 새롭게 자리했다.

한우산에는 무게 1.6톤 높이 1.5m×넓이1m의 정상석과 좌대석, 미타산에는 무게 2.9톤 높이 1.9m×넓이1.3m의 정상석과 좌대석이 각각 설치됐다.

유래석의 문안은 전 의령문화원장 허백영씨, 서체는 낙서면 출신 서예가 윤관기씨가 각각 맡았다.

한편 이들 정상석의 제막식은 신년 1월 1일 새벽 산 정상에서 자굴산을 사랑하는 모임등 각 산악회 주관으로 군내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 첫 수상자

전수진 정호영 정만순씨... 해외연수 기회도



왼쪽부터 전수진 정호영 정만순씨

의령군은 지난 7월 민원행정 혁신을 위해 도입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도 첫 수상자로 전수진(경제과) 정

호영 정만순(민원봉사실)씨 등 3명을 선정했다. 이들 3명에게는 연말 중무식에서 군수표창과 함께 4박5일간의 일본 해외연수기회가 주어진다.

호영 정만순(민원봉사실)씨 등 3명을 선정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는 의령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민원행정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 만큼의 마일리지 누적점수를 환산하여 1위부터 3위까지 우수공무원의 뽑아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상자중 전수진씨는 누적점수 68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정호영씨가 478점, 정만순씨는 439점을 기록했는데 이들 점수는 공무원들이 단축한 민원처리 기간을 나타낸다.

행정과 박말도씨 바르게 훈장



의령군 행정과 박말도 행정주사가 지난 21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열린 2007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회원대회에서 바르게 훈장을 받았다. 박씨는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구현하기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강희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구강희씨(40,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7급)가 지난 6.7양일간 부산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07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 따른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구씨는 그동안 복지업무 수행하면서 관련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기준씨 농촌지도대상 농촌지도분야공로



상 우수상을 받았다

최 지도사는 지난 21일 중앙 및 지방 농촌진흥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7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농촌지도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쌓은 공로로 상을 받았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최기준 농촌지도사가 2007년 농촌지도대

향우 조무현씨, 쌀 150포 기탁



출향인사 조무현씨(63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13-2)가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저소득층에 전해달라며 쌀20kg 150포(6백만원 상당)를 화정면사무소에 기탁했다.

화정면은 이에따라 의령농협

화정지소 택배를 이용해 관내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150세대에 1포씩을 전달했다.

화정면 보천마을 출신인 조씨는 군포시에서 (주)나라테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그동안 고향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정면 백곡마을에 전자제품 기증



의령군 화정면 백곡마을과 자매결연한 (주)삼성생명보험 부산 지원파트는 24일 화정면 화양리 백곡경로당을 방문해 TV

에어컨 전자제품과 100만원어치의 겨울내의 등 총 420만원어치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삼성생명의 봉사코디네이트 박준영씨등 11명이 참여해 주민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